FTA의 효과에 대한 산업구조적 고려사항

李 淳 豪 (研究委員, 3705-6187)

현재 한국은 5개의 FTA협상을 타결 또는 체결하였고 추가로 41개국과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임. FTA효과를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자 함.

■ 두 국가가 FTA를 체결하여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교역하게 되면 두 국가 모두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1800년대 초반 David Ricardo가 비교우위론을 주창한 이래 경제학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자리잡았음.

■ 그런데, 두 국가가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특화한다는 것을 달리 생각해보면 각 국가는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폐쇄(shut-down) 내지 축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, 이런 비교열위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자유무역으로 인한 거래이익(gains from trade)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.

■ 한 가지 의문점은,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한 국가(A)가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을 추진할 경우 그 국가(A)가 다른 국가(B)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 또 다른 국가(C)에 대해서도 비교우위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임.

- 비교우위가 다를 경우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순조롭지 않아 자유무역의 실현이익(realized gains from trade)을 극대화하지 못할 수가 있음.

■ 현재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는 5개(17개국)이며 추가로 41개 국가와 협상 중이며, 향후 11개국과는 FTA 체결을 위한 예비단계를 진행 중임.

- 칠레, 싱가폴, EFTA, ASEAN, 미국 등 17개국과는 FTA를 타결 또는 체결하였고, ASEAN, 캐나다, 인도, EU 등 41개국과 협상 중이며, 한 · 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(완료) 및 한 · GCC FTA 예비협의, 한 · 중 산관학 공동연구('07.3.22 출범) 등 11개국과 FTA 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 중임.[1)]
- 이미 타결되어 2007년 6월 발효예정인 한 · ASEAN FTA는 상품무역협정(태국 제외)

1) EFTA는 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 등으로 이루어진 유럽자유무역연합이고, Mercosur는 남미공동시장으로 브라질, 아르헨티나,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를 포함하고, GCC는 걸프협력회의로 사우디, 쿠웨이트, 바레인, 오만, UAE 및 카타르를 포함함.

에 국한되고 있으며 서비스 및 투자협상은 현재 진행 중임.

■ 가장 최근에 협상이 타결된 한 · 미 FTA의 기대효과에 관한 정부 발표문을 보면[2], 자동차, 전자 및 섬유 · 가죽 · 고무 · 신발 부문에서 수출이 증가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후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- 미국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(현 2.5%)가 철폐되면 한국산 승용차의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,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면 부품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현재 우리나라 섬유업이 세계시장뿐 아니라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어 FTA가 발효되면 수출이 증가하여 섬유부문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영상 및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현재 2~5%이며 관세가 철폐되면 디지털 TV, 고급가전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■ 반면, 농업의 경우 여러 가지 세이프 가드를 마련하였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.

-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곡물류, 축산물 및 과일류와 같은 대부분의 민감품목에서 장기 이행기간을 확보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농업의 피해가 예상됨.

■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한 · EU FTA가 체결될 경우에도 자동차, 섬유, 전자 등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EU의 여러 국가와 미국은 산업구조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이 서로 달라 한 · 미 FTA로 인해 한 · EU FTA는 서로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를 보면, 우리나라 기업의 71.3%가 한 · 중 FTA 체결을 지지하며 한 · 중 FTA가 수출증대와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.[3]

■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미국이나 EU와는 다를 것인 바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산업구조가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정립한 후 그런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느 국가와 어떤 형태의 FTA를 체결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임.

- 또한 FTA는 산업구조를 조정할 것이므로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2) 재정경제부 (2007.4.2),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
3) 전국경제인연합회 (2006.11), 한중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